



### “바다에도 포교바람 일으키겠습니다”

대한경불회 2대 회장  
한진호 인천경찰청장

“신행활동의 불모지였던 해양경찰청에 불교회 ‘연꽃’을 심겠습니다. 또 기존 단위 기관 경찰불교회 활동도 내실화해 경찰불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2대 대한민국의경찰불교회장으로 선임된 한진호 인천지방경찰청장(55·보명·사진)은 6월 22일 경북회 중앙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출범 4년차 경불회의 향후 발전 방향 및 그림을 이렇게 제시했다.

“경찰불교회는 그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06곳의 경찰 기관에 불교회를 창립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포교의 사각지대였던 해양경찰청에 불교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불회가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모범 직장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산하 13곳 기관을 대상으로 불교회 결성 유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방경찰청 불교회와 자매결연을 유도해 불교회 창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청 불교회는 산하 경찰서 불교회 활동의 구심점입니다. 동일 지역 내 경찰청자들이 상호 유기적인 신행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법제도 합동으로 병행할 수 있어 지역 경찰불교 활성화에 초석이 됩니다. 지방청 불교회에 중심이 되고, 산하 경찰서 불교회 활동의 기초가 되는 특정한 경찰불교 신행단체를 마련하겠습니다.”

한 청장은 이와함께 미장립된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 출범을 추진해 전국 총 13곳의 지방청 불교회 창립을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철우 기자



“우리 불교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원들이 6월 23일 안양시청신원 불교대학 아간기초교리특별반 입학식을 마치고 교재를 반씩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 수요일은 무조건 불교대학 가는 날

### 안양시청불자회원 38명 지장선원 단체 입학

### 회원 절반이 ‘학구열’ ... “개근상 꼭 받을래요” 한목소리

술동무 8년째인 직장인 권익철 씨(52·제원)와 정미화 씨(50·대원). 앞으로 6개월간 술진구이기를 서로 거부했다. 퇴근 후 한잔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교기초교리책을 집어 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또 취기로 오가는 농 집은 얘기 대신 스님의 감로법문을 듣기로 했다. 이렇게 늦깎이 불교대학 학생이 되기로 마음먹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순간의 선택에 이의는 없었다.

6월 23일 저녁 7시, 안양시청신원 아간 특별반 입학식이 열린 날. 불교의 ‘불자’도 잘 모른다는 ‘초자배기’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 38명이 단채로 불교대학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6월 불교회 첫발을 올리고 신행활동은 시작했지만, 경전은 아리송한 암호문이었다. 동료들은 불교가 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애꿎은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고민 끝에 결문을 내렸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는 각오로 불자회원들을 하나둘씩 모았다.

“처음엔 몇 명이냐 참여할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반응은 폭

발적이었어요. 전체 회원 60여 명 가운데 절반이상 가입했으니까요. 속으론 공공 앞에선 불교공부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똑같았나봐요.” 입학 권유를 주도했던 정미화 기초교리반 학생회장의 말은 이렇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불자회원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포대화상’을 처음 보고 소주 광고의 ‘금복주’를 닮은 분을 절에 왜 모셨을까 의심을 했었다는 전영순(50·해안심) 기초교리반 총무도, 기본적인 것도 몰라 불교를 오해할 일조차 없었다는 권익철 씨도 불타는(?) 학구열만큼은 남달랐다.

“공부에 끝이 있었어요. 돌아서면 있어 버리는 나이지만 꼭 버리지게 불교를 배워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늦어서 단 10분만 강의를 들을 수 있어도 반드시 출석해서 개근상을 꼭 받을 겁니다.”

이국희(57·해도원) 씨의 각오가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불교공부의 열정을 키울 수 있던 것은 이 대학 학장 현호 스님(안양시청신원 주지)

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은 이들 불자회원들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 해주었고, 직장인들인 점을 감안해 이번엔 특별 아간반도 개설해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우 100개를 구입해 불자회원들이 불교의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다.

“마냥 기쁩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겠다고 공무원 불자들이 대박심을 내니, 한국 재가불교의 희망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반이 끝나면 경전반도 만들어 지속적인 불교공부의 장을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또 인근 안양경찰서 불교회, 국토연구원 법우회 등의 회원들도 참여시켜 불교대학을 안양 지역 직장불자들의 배움터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불교의 바다로 들어간다. 불교기초교리는 물론 참선 108배 정진 등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탈바꿈하게 된다. (031)444-5935

인천=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우리불자회는요

####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홍릉법우회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지주국방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홍릉법우회원들은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국방연구와 군수물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법우회원들은 모든 열정과 혼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는 홍릉법우회입니다. 지난 1983년 국방관리연구소 시절 10여 명의 불자들이 동지 창립된 직장연합 불자회입니다. 한 때는 국방정보체계연구소 불자회원들도

위대한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영세민들을 위해 명절 때마다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빠지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과 수발을 들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릉법우회가 20년 넘게 지나오면서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연구원 일정 등으로 정기법회 참석 회수가 적어 초창기 법사님에게 죄송한 적도 많았고, 회원 결속력도 다



홍릉법우회원들이 올 봄 인동 봉정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 공부하며 불심·애국심 함께 길러 봄·가을 전국 군법당 순례 ‘인기’

법우회에 참여해 정부 출연 국방연구기관의 연합 불교단체였지만, 지금은 두 기관의 불자 70여 명이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릉법우회 신행활동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관련 단체로서 우리 법우회는 군내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군법당

소 털어져 법회가 곁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홍릉법우회보>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릉법우회는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불서보급 운동을 벌여 비회원들에게도 나눠주고, ‘불자 1인 모셔오기’ 운동도 전개해 회원을 늘리는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술속의 명상’ 프로그램 도입해 일반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박2일 동안 경기도 다성원을 방문해 ‘술속 산책’, ‘새벽명상’, ‘자연시 체험’, ‘마음의 거울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법우회가

이종인 회장(해인연구원)

#### 티셔츠 기본 색상

카키, 베이지, 소라, 옐로우, 연옥, 검정, 홍색, 코발트, 곤색, 빨간지, 자주, 백색, 분홍, 노랑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20수 이중 라운드티  
5,200원(아동) 5,500원(일반)

20수 아동 폴로티  
6,500원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500원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추천상품  
법구경가리다 1,500원

연꽃저금통 2,500원

동자저금통 4,000원

종경 차걸이 4,000원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 마이돌 T-셔츠 캐릭터 \*

- 순면 20수 코마사 100% -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원단
- 순면 30수 코마사 100% - 대중적인 티셔츠로 부드러운 질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단체명·사찰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능
- 납입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소주문수량 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 사찰수련회 및 여름복합화기 티셔츠 기획전